言語와 社會秩序

高 永 復
(서 울 大 學 校)

언어 사회학적 입장에서 뭔가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몇몇 서책을 뒤져 보긴 했읍니다만, 언어사회학 자체가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사회학적 영역의 업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언어와 사회질서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상당히 주관적이고도 독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언어학하신 분에게는 좀 이단적인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언어 즉 언어구조와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어떠한 방향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데 대한 간단한 제 자신의 소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사회학에서는 문화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읍니다만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言語라고 봅니다. 문화를 인간 社會生活의 총 집적이라고 본다면 문화자체를 운반하고 문화자체를 전승하는 것이 결국 언어 속에 집결이 된다고 본다면 우리 인간의 문화발달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언어의 양적 질적인 발달을 동시에 가져 온다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 있는 문화가 변하고 사회 속에 있는 문화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구조와 언어구조와의 사이에 있어서 과연 어느 만큼의 관계를 인정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물사관적 입장의 스탈린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읍니다. 즉 소련사회에서의 言語에 관한 논쟁 부분을 보면 소련 사회에서는 언어를 상부구조에서 제외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어는 특정계급의 사유물이 아니고 또 계급이해를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공통성을 띠고 있는 문화이고, 따라서 하부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상부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로 귀착이 되었다는 것을 읽은 일이 있읍니다.

원래 언어자체가 갖는 內容이 복잡하기 때문에 言語의 한 部分을 본다면——이것을 우리가 言語의 形式 또는 形態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그것은 분명히 상부구조의 特色을 띠우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社會가 변동해 감에 따라서, 특히 또 社會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언어구조 자체도 바뀌고 있읍니다. 이것은 흔히 古代 英語

와 近代 英語와의 변천이 社會構造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시켜서 설명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사회구조는 언어구조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言語의 음운 자체도 사회의 변혁에 따라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의 선택 내지 어휘의 새로운 창조, 강조가 사회마다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해방후 줄곧 특정어휘가 특정시대에 유행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어휘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회구조의 양상의 변화가 言語自體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유물사관에서 보는 상부구조적 성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言語의 形式에는 해당될는지 몰라도 그 內容에 關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불란서의 「뒤르까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주의 학파에서는 言語를 集團心性의 한 형태로 보고 사회의 生活 그 자체가 집결되는 하나의 수단내지는 한 방편으로서 언어를 보기 때문에 결국 社會 即 言語라고 하는 表現으로 요약되는 이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회가 생각하는 것이 言語가 되고 言語를 통해서 集團心性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社會와 言語를 비교할 때,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변하는 면이 있고 변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언어와 사회질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우선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여기선 간단하게 항목만 열거를 하겠읍니다. 말하자면 言語가 社會秩序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류의식을 강화해 주며 그리고 사회의식을 확대해 주고, 집단정신을 유지하게 해 주며, 상호작용의 매개체로서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思考를 誘發하고 보조해 줌으로써 정신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해준다 等等 社會속에서 언어가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말이 언어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어의 확대 규모나 동일언어의 영역이 결국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고 사회가 형성된 영역을 결정해 주고 있읍니다. 즉 사회의 범위를 알려면 결국 언어의 범위를 알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언어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어의 구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언어학자체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언어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어학의 분야에서 보면 좀 이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어자체를 문화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문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구조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는 가하는 관점에서, 파슨즈라는 사람의 문화분류기준을 원용해 봅니다. 즉 그는 cognitive culture (인지적인 문화), expressive culture (표출적 문화), evaluative culture (평가적 문화)로 문화를 삼분을 해서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하는 우리가 갖는 신념체계는 cognitive culture에 속하고 이에 대해서 상징체계, 예술等等이 expressive culture

에 들어가고 도덕과 같은 것들이 evaluative culture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문화를 분류하는데 파슨즈의 분류법이 반드시 일반성을 띠고 있고 또 적합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언어에도 그대로 그러한 구조적인 문화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cognitive 한 면이 있고, 이것은 상호간에 의사를 전달하고 information을 교환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언어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언어는 expressive 한 면도 있는데,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정서를 전달하고 또 언어 자체를 通해서 뭔가 정서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evaluative한 것은 상호 이해를 돈독하게 한다 할까 이해를 촉진하는 면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언어는 하나 하나 단독으로 떼어서 전달만 한다든지 혹은 정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속에 congnitive한 면이 있고 또 expressive한 면이 있고 evaluative한 면도 모두 포함되어 있읍니다. 다만 언어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기에 있어서는 어느쪽이 보다 강한가, cognitive한 면이 많은가 expressive한 것이 보다 더 많은가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언어자체는 하나의 언어가——sentence라 해도 좋겠고 proposition이라고 해도 좋겠읍니다만——이런 세가지 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사회속에 있는 문화중의 철학이나 과학, 즉 신념체계로서의 cognitive culture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어자체속에 반영되어서 언어자체의 내용을 변화시킨다고 보겠읍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關係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구조를 문화와 관련시켜서 본다면은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질서와 언어와를 어떻게 관련시키겠는가가 문제됩니다. 우리가 사회질서라 하면 사회체재 또는 사회유형전반을 이야기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사회질서를 크게 나누어서 분화를 위한 질서가 있고 통합을 위한 질서가 있다고 보고,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는 분화의 경향을 내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통합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중요한 측면이라고만 지적해 두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분화의 질서에 있어서 언어와 어떻게 관련을 갖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사회는 어떻든 세대나 연령별로, 성별 즉 남자와 여자, 그리고 계층별로 상층, 중층, 하층, 그리고 지역별로 농촌, 도시, 직업별로,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구체적인 집단별로 분화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계속 촉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업화라든지 혹은 전문화라든지 혹은 개성화라든지 혹은 다원화라든지 하는 사회적인 조류와 호흡을 같이 한다 할까 그런 경향에 순응해서 사회는 자꾸만 계속 쪼개지고 또 나누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렇게 사회가 쪼개어지고 있다고 하면 남자의 세계, 여자의 세계가 다르고 나이 많은 사람, 젊은이의 세계가 다름에 따라서 그 집단 자체의 문화——소위 언어공동체라 할 수 있겠읍니다만——나 언어 자체가 사회적인 분화의 결과를 확보하거나 혹은 보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언어 자체의 분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사회학의 과제는 이런 분화된 집

단, 분화된 사회구조에 대해서 언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사회의 구조적인 분화자체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분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탐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몇 논문들을 보니까 특히 미국의 언어 사회학자들은 계층과 언어를 관련시키는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계층, 즉 생활배경이나 생활수준과 언어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Elaborated Code 와 Restricted Code 가 階層에 따라 다르다는 理論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言語全體가 모두 바뀌어 진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는 몇가지 변수와 계층적 변수와를 관련시키는 연구 테마에 국한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더 전문화가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一般化가 이루어지는 學問的 業績이 계속 나와 주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음 통합의 측면을 보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계속 제도화가 촉진됨으로서 동일한 규범에 따르는 어떤 관습이 확립되고 또 기계화도 촉진됨으로써 획일화가 되고 mass - society, 즉 대중사회화가 이루어지며 또는 계급화가 됨으로써 —계급화라하는 것은 동일한 이해 집단들이 동일한 결속을 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질 때 계급화라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의 동일성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을 공유하는 복지화 내지 계획화라고 하는 경향도 한편으로는 사회체재가 갖는 통합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순응해서 한편으로는 표준어를 찾고 또 가능하면 여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통어를 찾고 또 어휘의 보편화라든가 하는 경향도 촉구되고 있읍니다. 특히 동일 사회내에서도 지역간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통혼권이 확대되고, 정치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도시화가 촉진되고, 교육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정치조작의 기술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종교가 확대되고, mass media 가 갖는 영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동일한 언어를 갖자는 어떤 가능성이 점차로 많아져 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언어는 한편으로는 언어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성이라든지 다원성을 지양해서 종합화해 보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가장 효과적인가가 문제 됩니다. 가령 세계 공통어를 만든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통합의 질서에 순응하는 언어의 자체변화라 할까 자체 조정의 방향이 한편으로는 모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의 해결이 또한 언어사회학의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분화의 질서와 통합의 질서라 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있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기본적 추세인데 이 두 가지는 그 자체가 상호간에 대립하고 상호간에 서로 맞지 않는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의 해결이 사회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니만큼 언어학에서도 역시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重要性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例로서 아까 언어구조를 나누었을 때 cognitive, expressive, evaluative 라는 말을 썼는데

evaluative 라 하는 것은 cognitive 와 expressive 한 것을 평가하고 그 비중을 따져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고 하는 면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cognitive 한 것과 expressive 한 것의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독단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cognitive 한 문화 즉 인지적 언어의 면에 있어서는 통합화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 표출적 언어 말하자면 expressive 한 것에 관련되는 언어는 분화하고 개성화하는 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Evaluative 한 言語가 보다 積極的으로 發掘되어야겠읍니다. 대단히 조잡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회질서의 分化에 순응하는 구조하고 사회질서의 통합에 순응하는 언어의 구조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검토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마디 추가한다면 社會學에 있어서도 언어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행동과학적인 접근방식이 사회학에 많이 도입되므로써 사회학에서 사회조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는 있읍니다. 그중에서 내용분석법이라든지, 행동분석법 또는 태도조사법에서는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즉 우리는 언어를 通하여 행동을 추측하고 동시에 태도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언어밖에 없으므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의 의미를 알고 언어를 통해서 태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의 한 예를 들면 '베일스' 같은 사람은 행동분석의 기준으로서 연대성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긴장해소를 한다든지 혹은 결정을 한다, 통제를 한다, 혹은 평가를 한다, 지양을 한다 等으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어떠한 의미,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지 간에 모든 언어가 이 여섯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분석이 과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회행동의 의미하고 언어 속에 나타난 의미하고가 어느 만 큼 일치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사 방법의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읍니다. 要컨대 언어의 체계의 정리가 사회과학적 발달 혹은 사회과학적 요청에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겠읍니다마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통의 frame of reference 라고 할까, 어떤 준거 기준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와 언어, 나아가서 사회과학과 언어학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REFERENCES

T. Parsons, *Social System*, 1951

D. Hymes,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1964

D.R. Heise, "Social Status and Word Connotations," *IJAL* Vol.33, No.4, 99—111, 1967

B. Bernstein, "Elaborated and Restricted Codes," *IJAL* Vol. 33, No.4, 126—133, 1967

J.O. Hertzler, "Social Uniformation and Language," *IJAL* Vol. 33, No.4, 170—184, 1967